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위기: -TV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대한 기호학·담론 분석-

Young Generation, Media Representation and Its Implications
: A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es on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of tvN

송아현*, 백선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Ah-Hyun Song(ahyun0324@gmail.com)*, Seon Gi Baek(beak99@skku.edu)**

요약

본 연구는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재현된 청년세대를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방영된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총 16편을 분석한 결과,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을 대하는 태도 및 방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세대는 사회적 인정이나 지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경제적 효율과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드라마가 내포하고 있는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현재의 청년세대가 부모로부터 전수 받은 사회 인식과 자신이 직면한 현실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될 이러한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 중심어 : | 청년세대 | TV드라마 | 미디어재현 | 기호학분석 | 이번 생은 처음이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the TV drama of tvN from October to November of 2017,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which was regarded as a well description of the current young generation's daily life and reality. In order to figure out how it depicted the young generation in TV drama, the authors tried to analyze i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ise of neo-liberalism changed their social and financial lives rapidly. It pushed the young generation to give up on dynamic challenges and dreams, and to search for normal and inactive life styles. It was also found that its myths and ideologies implied how much differently Korean young generation confronted big gaps between their cognitive realities and their actual realit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full understanding why and how such Korean young generation sought for an unique life styles to overcome various difficulties in such chaotic societal situations.

■ keyword : | Young Generation | TV Drama | Media Representation | Semiotic |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

I. 서론

2017년 6월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5%가 해외 취업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1]. 그 이유로 ‘국내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서’(46.9%)를 손꼽았다. 이는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양산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노동 착취를 일컫는 ‘열정페이’,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일컫는 ‘헬조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사회 내 계급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 구직난, 경제난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삼포세대’ 등의 신조어가 양산되었다. 나아가 내 집 마련을 비롯해 꿈, 희망 등 다양한 욕망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N포세대’라는 기호도 등장했다.

‘대학 졸업 - 정규직 취업 - 결혼 - 출산 - 내 집 마련 - 정년퇴임’이라는 생애과정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생애과정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거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불안정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N포세대라 불리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자신의 역량이나 노력으로 이같은 생애과정을 겪기 힘들게 되었다.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 보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일컫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안정적인 직장과 내 집 마련, 결혼 등의 정상적인 ‘생애 과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세대의 위기와 현실을 다루는 드라마는 없었다. 기존의 드라마에서 그리던 청년세대는 대학생의 ‘뜻뜻함’, ‘도전’, ‘희망’ 등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양산했으며, 청년세대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내재된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세대

1.1 청년세대의 개념

청년세대를 논하기에 앞서 세대(generation)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의 경험을 지니고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대’라 한다. 같은 세대는 공통의 경험과 그에 따른 집단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기억을 통해 자신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한 한국 사회에서 ‘세대’는 큰 의미를 지닌다. 각 세대가 경험한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문화적 양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는 세대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함께한 시대의 상황 체험을 기반으로 공통의 의식을 갖는 비슷한 연령대’로 정의한다. 세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독일 역사주의 정신과학자 딜타이(Dilthey)다[2]. 그에 의하면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곧 같은 세대인데,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 함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청년 시기에 어떠한 사건을 접했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것을 의미한다.

만하임(Mannheim)은 기존의 실증주의 세대론, 낭만주의 세대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세대론을 제시했다. 세대를 고찰함에 있어 개인이 아닌 집단을 주요 단위로 구조화했으며, 세대 운동과 계급 운동을 비교하면서, 같은 세대 안에도 서로 다른 세대의 단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수평적 세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으며, 같은 세대 안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만하임은 세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 세대 단위(generation unit), 실천 세대(generation as actuality)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3].

‘세대 위치’는 수동적인 개념으로서 세대의 주관적 인식과 관계없이 세대가 놓인 맥락이 규정하는 개념이다.

‘세대 단위’는 동일한 집단으로서 세대가 아니라 세대 내 존재하는 차별적 분파를 규정한다. ‘실천 세대’는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역사 변화를 추동하는 개념이다[2].

만하임이 세대를 설명하는 방식은 ‘코호트(cohort)’ 효과로 인식된다. ‘코호트’로서의 세대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 공유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이 태도나 행위 양식의 잠재적 기반이 된다[4]. 코호트 효과는 동일한 사회·경제 구조 하에서 삶을 영위한 특정 연령집단이 공유하는 정치와 정치사회화의 경험이다[5]. 특히 출생 코호트 효과는 어느 특정 사회경제구조 하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유된 정치·문화·사회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6].

홀브와치스(Halbwachs, 1992)는 세대경험을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인식한다. 집단 기억의 제도화는 세대문화나 세대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세대는 집단 기억을 통해서 자신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만든다. 패션, 언어사용, 상징공유와 같은 세대의 의식은 세대문화의 원칙이나 지향점을 반영한다[7].

와이엇(Wyatt, 1993)은 세대의식이나 세대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외상적(traumatic) 사건’, ‘선도자의 중요성’, ‘인구학적 변화’, ‘이전과 이후 세대를 구별하는 특권적 간극(privileged internal)’, ‘문화를 만드는 특정한 장소’ 등이다(Wyatt, 1993)이다. 외상적 사건은 전쟁이나 정치사회적 변동을 의미하며, 선도자는 기성체제나 지배문화에 저항하면서 세대의식을 이끄는 사람이다. 특권적 간극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의 특정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며, 특정한 장소는 1969년 우드스톡(Woodstock) 공연이나 시청 앞 광장 같이 집단 기억을 발현하는 지정학적 위치다[7].

1.2 청년세대의 사회적 의미

세대에 대한 논의에 이어 청년세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하임에 의해 제기된

세대에 대한 담론은 생물학적 리듬에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담론이다. 특정 세대의 형성은 의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8].

현재 청년세대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 이미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청년세대는 여러 사회주체들이 명칭 하는 언표와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시 만들어지는 일종의 ‘구성체(formation)’다[9].

‘청년’과 같이 사회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개념은 보통 반대 개념, 또는 그것이 아닌 존재 등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재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시대와 조건에 따라 의미를 지닌다[10].

이렇듯이 ‘청년세대’에 대해 특정 시기와 특정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별로 청년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고, ‘청년’이라는 기표가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1900년대 이후 ‘청년’의 범주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담론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11]. 20세기 초반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에 의해 청년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사명을 지닌 세대를 의미했다. 그들은 시대 주체의 주역이나 계급의 교체가 아닌, 세대의 교체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청년’은 이전 세대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기표로서의 의미를 지녔다[12].

‘청년’은 새롭고 역동적인 근대적 주체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이상적인 집단이며 표상으로 상징되어 왔다[13]. 산업화 시대의 청년은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청년’의 한 축은 대학생으로서, 또 한 축은 노동자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들은 보다 거대한 기성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주체이기도 했으며, 민주화 시대의 주역이었다[12].

1.3 청년세대의 현 주소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청년들은 사회적 주체의 자리에서 밀려나 소비중심 사회에서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청년’과 ‘실업’은 직접적인 연

계를 지니게 되었으며, 소비할 돈 조차 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전 시대에서의 청년과는 확연히 다른 '88만원 세대'라는 우울한 표상의 세대가 등장한다[14].

'88만원 세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청년세대의 현실과 민낯을 마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보여 온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로부터 형성된,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성공 신화'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88만원 세대'라는 기표는 청년세대가 마주한 비정규직의 노동 기회와 저임금 시대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표상이다. '88만원 세대'란 119만원(당시 비정규직 평균 임금)과 74퍼센트(당시 20대 평균 소득 비율)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결국 88만원 세대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이 심리적인 기저에 깔린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며, 고용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상한 것이다[15].

'88만원 세대'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노동구조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청년 문제들에 따라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했다. '잉어'와 '세대'가 결합되어 청년세대를 설명하는 '잉어세대'가 등장했는데, 문제는 청년세대가 스스로를 '잉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욕구나 꿈을 구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것이다[12].

'수저 계급론'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 열정과는 상관 없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16]. 이것은 자신의 삶을 구축하려는 20대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불공정 계급이다. 출발선의 차이가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삶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 수저계급론은 원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이라는 영어 표현에서 비롯되었고, '수저계급론'으로 진화했다[17].

세대 명칭이라는 기표는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세대담론이란 궁극적으로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18]. 현 시대의 청년세대를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삼포세대'는 경향신문의 특별 기획시리즈 <복지국가에서 말한다>에서 사용한 신조어다. '삼포세

대'는 불안정한 사회 구조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오포세대', 나아가 희망과 꿈을 포기한 '칠포세대', 심지어 삶의 기반이 되는 제반 욕망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N포세대'가 등장했다[19]. 이 같이 청년세대들은 취업난, 대물림되는 가난과 경쟁 중심의 사회적 구조로 인해 혼돈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게 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포기하게 만든다[20].

1.4 청년세대에 대한 기존 연구

다양한 세대 명칭으로 표현되어 온 청년세대에 대해 어떠한 주제와 관점으로 다루어왔는지 검토해보자. 청년세대가 마주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노동 구조가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다. 청년세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IMF 이후 맞이하게 된 한국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붕괴에 있다[19]. '신자유주의'는 그 이후 등장하여 기존 자본주의 축적 양식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였다. 헬조선은 원래 '헬조선'이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단어 헬(hell)+조선(朝鮮의 일본식 음독)의 합성어다. 이 용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선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주류 언론을 통해 '헬조선'으로 정착되었다[21].

<경향신문>의 헬조선 커버스토리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로 헬조선 담론과 함께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가 '미개'임을 밝히고 있다. 헬조선 담론에서 쓰이는 '미개'라는 기호의 맥락은 비정규직·불안정노동, 열정노동 같은 사회 문제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본격화된 폐단을 의미한다[17].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 인간되기'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주체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인간이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공적 부분보다는 사적 부문의 고용 체계에 변화를 일으켰다.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사적 부문의 고용 체계는 노동 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

향을 미친다. 안정된 일자리를 뜻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전형(non-standard) 인력이 늘어나면서, 피고용자들의 불안이 증대되었다[22].

청년세대는 대부분 짧은 경력을 지닌다. 이들은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미 채용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이 지닌 특수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의 고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23]. 이것은 노동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특권을 누리는 내부자(insider)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outsider) 간의 근본적인 차이이며, 이로 인해 취업난은 더욱 가중된다[24].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 문제도 등장한다. 박해천은 「아파트게임」(2013)이라는 저서에서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 원룸 등 다양한 ‘방’에 사는 사람들을 ‘큐브생활자’라고 명명했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4㎡ 미만(1인 최저 주거 기준)인 공간에 거주하는 이는 전국적으로 499만 7913명이고, 그 중 청년층이 111만 7629명이다. 최저 주거기준은 넘지만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청년은 138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난다[25].

2. 대중문화와 청년세대

2.1 대중문화와 미디어

미디어란 언론, 드라마, 광고,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장르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뉴미디어, 소셜 매체 등을 복합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미디어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대중사회의 이면에 주목하고, 장르와 매체로 지칭되는 공간에 담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논의하거나 논쟁을 주도하는 공간을 제시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중문화가 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주요한 이슈나 의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미디어의 ‘확산이론(theory of diffusion)’이라 하는데 미디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근원의 기능이다.

미디어는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다양한 담론들을 생성하며 여러 가지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대중문화의 현상들에 대해 주목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영향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담론들을 생성한다[26].

2.2 디지털 미디어와 청년세대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 이외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소통 방식이다. 디지털 세대는 변화된 기술 환경과 재현 방식에 적응한 세대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경험한 세대이다. 한 세대를 규정하는 데는 그 세대가 경험했던 문화·정치적 상황 등이 갖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보통의 경우 세대 담론은 베이비붐세대, 386세대와 같이 인구구성비나 정치적 경험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경험, 문화 소비 등이 세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세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으로는 1990년대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 기기의 확산을 들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대중화는 의사소통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까지 가져왔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환경에 익숙한 기성세대는 라이프스타일, 문화 소비, 의사소통, 정보 생산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2]. 디지털 세대의 소통방식에 대해 능동성의 축은 ‘수용자’의 의미 ‘해독’ 기능으로부터 ‘이용자’의 ‘생산과 창출’ 기능으로 옮겨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의미 해독보다 행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24].

현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용어 중 가장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다. 이는 닐 하우(Neil Howe)와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가 1991년 출간한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80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태어난 첫 세대로,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 기술에 능통하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랐으며,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기도 한다.

3. TV드라마와 재현

3.1 TV드라마의 정의와 특징

드라마는 문예의 3대 장르의 하나이며,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완성된 총체적 예술이다. TV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때문에 친근하고 쉽게 느껴진다. TV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어로 'tele'와 라틴어 'vision'을 합쳐서 생긴 단어로, '멀리보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28]. TV 드라마는 TV가 생겨나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장르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에 이어서 등장했지만 이들 매체들의 특성을 종합해서 만든 결정체다[29].

TV라는 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는 사회적 계급이나 거주 지역, 나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다루고 있다, TV 드라마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30].

3.2 TV드라마의 서사성

TV드라마는 콘텐츠 수용자에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와 규칙을 지닌 서사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낸다[31].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접하면 드라마 속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드라마 속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식하게 된다[32].

TV드라마는 예술 형식을 지니지만 대중의 일상을 기반으로 한 서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33]. 서사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로 표현되며 허구적이지만 일상적 삶을 다루기 때문에 대중은 드라마를 통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서사 분석의 의의는 제작자의 특정한 의도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없이도 텍스트 자체에 드러나는 구조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그것이 제 공하려는 핵심적인 가치와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35].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영상과 기호가 어려워져 내포하고 있는 수많은 의미와 그것들이 함의하고 있는 신호와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36].

3.3 TV드라마와 재현

TV 드라마의 재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드라마 속의 재현은 특정한 언어와 영상화 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TV 드라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재현하는 일상적 문화의 콘텐츠이며, 비록 실제 삶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한 번쯤 처한 상황이나 사건 혹은 경험을 배우를 통해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하며, 동일한 드라마를 수용한 사람들에게 공유된 정서를 발현시킨다[37]. TV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현실 재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28].

TV드라마는 대표적인 영상도식 중 하나다. 영상도식은 영상을 도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개념을 영상화 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TV드라마는 얼굴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고 특히 눈으로 말하는 환유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38]. TV 드라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도구이자, 수용자에게 확산시키는 매체다[37].

4. TV드라마에 재현된 청년세대

4.1 TV드라마 속 인물의 재현 의미

TV드라마는 사실상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좀 더 색다른 것과 자극적인 것을 보려한다. 이에 TV드라마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 한다[32]. TV 속의 인물은 '허구적 서사'에서 등장하지만 일정한 양식을 통해 반영한다[40]. 드라마는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재현한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관계, 이야기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기도 한다[32][34].

4.2 TV드라마에 재현된 청년세대

TV드라마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 의미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1980~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화려한 휴가(2007)>, <건축학개론(2012)>와 같은 영화 등은 청년세대의 저항적인 모습과 소비지향적인 모습, 자유로운 모습을 재현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

습(2011~2012) >, MBC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2012~2013)>, KBS2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2013)> 등은 높은 취업난과 사회적 편견에 좌절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려냈다[40]. 일류 대학 출신이 아니거나 유학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꿈이나 취업을 빌미로 성추행을 당하는 일 등은 재미나 감동을 위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청년세대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재현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드라마나 영화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으로 설정할 뿐, 이들 문제들을 야기하는 사회적 구조나 부조리 등은 다루고 있지 않는다[40].

실제로 지방대 출신임에도 광고 업계에서 '천재'로 평가 받는 이태석(32)의 성공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KBS2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2013)>은 방영 전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학벌주의, 스펙주의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회 고발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루면서 그러한 기대는 사라졌다. 신자유주의 시대 속의 직장인의 삶을 그린 KBS2 드라마 <직장의 신>은 비정규직의 삶을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41].

2017년 들어 청년세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16부작의 드라마가 나타났다. 바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인데 윤지호, 남세희 등 주인공 다섯 명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 결혼, 직장, 경쟁 등의 현실 문제들을 다루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과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들 관계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서사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 이들 서사 구조의 중심주제, 갈등 및 정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이들 쟁점들을 구현하는 담론은 무엇이며, 담론에 내재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0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tvN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방영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총 16편을 분석했다.

2.2 분석 방법

1) 서사 구조 분석방법

서사는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이며 서사 구조는 텍스트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을 기호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41].

서사를 지닌 모든 콘텐츠는 이야기와 담화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이야기와 담화는 '누구'에 해당하는 주체와 '무엇'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가가 담화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점이다.

서사 구조는 스토리와 플롯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스토리와 플롯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드라마의 서사 구조분석은 텍스트를 구성한 요소들이 기호체계로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의미작용을 표출하는지 텍스트에 내재된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37].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시퀀스 분석과 국면 분석이 있다. 시퀀스 분석, 국면 분석은 이야기의 흐름이 전환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의미를 찾아낸다, 시퀀스는 장면이 전환되는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국면 분석은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가 변화되는 시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분석방법이다.

2) 계열체 분석방법

계열체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할 때 통합체 분석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계열체 분석과 통합체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서사를 파악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있다. 통합체 분석은 서사에 대해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통시성을 지니는 데 반면, 계열체 분석은 기존의 관계들의 체계를 바라보는 공시성을 지닌다. 계열 관계가 성립되는 단위들은 각 특성에 의해 공통점을 지니며, 공통점에 의해 범주가 형성된다. 범주에 속한 단위들은 그 안에서 다른 항목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계열체 분석에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이항 대립적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의미의 도출이 용이하다.

계열체 분석은 앞서 진행된 서사 구조 분석을 토대로 인물 간의 관계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속에 드러나는 이항 대립적 요소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갈등은 투쟁이나 배신, 복수나 협조 등 서로 다양한 관계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항대립적 속성을 지닌 인물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계열체 분석방법은 드라마의 중심인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간 유기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사건과 갈등의 유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각기 다른 직업과 특성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여 인물들의 다른 성향이나 속성들을 찾아낸다[37]. 연구문제 2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분석방법이다.

3) 행위주 분석방법

그레마스는 표층 층위의 통사론의 근간으로 행위주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심층 층위의 의미구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하나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행위주와 서사가 결합하여 생긴다. 행위주 모델은 행위주 몇 사람을 통해 의미의 구성을 구축할 수 있다[42]. 행위주 모델은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보조자(조력자)와 반대자의 대립쌍을 통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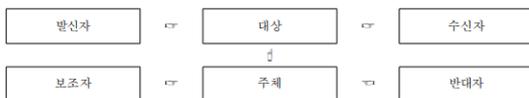


그림 1. 행위주 모델 도식

행위주 모델은 세 가지의 축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축이고, 두 번째는 대상을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대상을 전달하는 축, 세 번째는 능력을 나타내는 축이다. 행위주 모델은 세 가지 축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안에 '욕구', '지식', '능력'의 양태를 구성하게 된다 [42].

한편, 그레마스는 프로프의 기능목록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설화모델을 재구성했다. 먼저 '최초 상황'에서 주인공이 결핍이 시작되고, '자격 시련', '결정 시련', '영광 시련'을 거쳐 '최후 상황'을 통해 결핍을 해결하게 된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행위주 모델과 기능 모델 간의 연계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새로운 도식을 제시했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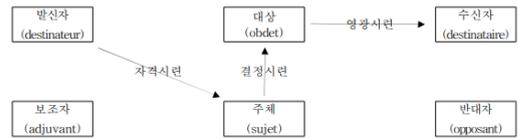


그림 2. 행위주 모델과 기능모델의 관계 도식

위의 모형을 통해서 각 서사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그 안에서 발신자, 주체, 대상, 수신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인물 간 관계와 여러 요소를 통해 복잡 다양한 줄거리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43]. 행위주 분석은 연구문제2를 붙어가는데 필요한 분석방법이다.

4) 담론 분석방법

담론(Discourse)은 기호학 이전부터 다양한 의미를 획득해왔다. 기호학 이전의 담론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질서정연한 설명을 의미한다[30].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등장 이후 이 용어는 다양한 연구들의 상호 교차점으로써 의미화 되었다. '담론'이란 발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단순한 기호체계라기 보다는, 이러한 기호 체계에 사회적 맥락이라는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주체들의 의식적 사고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의식이 포함'되게 된다. 담론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가진 적극적인 행위다[44].

담론은 텍스트 중심의 담론 분석과 사회적 현상 중심의 담론 분석, 두 가지로 나뉜다. 담론에 대한 논의 전개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담론은 대립과 갈등 등의 관계들을 반영하며, 그 안에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45][46]. 연구문제 3의 담론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분석방법이다.

5) 신화 분석방법

신화의 어원은 이야기를 의미하는 희랍어 ‘뮈토스’에서 유래한다. ‘뮈토스’는 시인들이 세상의 창조와 신들의 행위를 부른 노래 형식의 운문이다. ‘뮈토스’는 믿음의 이야기로 일컬어지는데, 집단의 생각으로 표현되고 전승되는 신화는 결국 믿어지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신화는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믿음은 일정한 사고체계로 전이 된다. 따라서 지배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신화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 작용하며, 사람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신화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신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신화의 속성 때문에 자신에게 신화가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 및 영상 콘텐츠는 이러한 신화의 특성을 활용하여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사회 내 자신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활용하는 이유다. 방송을 접하는 다수의 시청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연화시키는 신화작용으로 인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26].

TV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영상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기 어렵지만, 보여지는 장면 속에 의미가 함축되어 작용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이는 서사 구조에 따라, 인물 관계에 따라, 인물 간 갈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많은 하부 이데올로기를 수반하는 개념

이지만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상위 개념 하에서 전체가 유지되는 질서를 형성하게 된 다월리암스는 지배(dominant), 잔여(residual), 생성(emergent)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계급을 통해 지배 영역이 결정된다고 하고, 잔여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형성된 특정 계층의 의식을 유지하며, 생성 이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다[47]. 연구문제 3의 담론과 연계된 신화와 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분석방법이다.

표 1.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

연구문제	분석방법	중심내용
[연구문제1] 서사구조와 의미구성	서사구조 분석	중심서사와 보조서사의 발견
[연구문제2] 중심주제, 갈등 및 쟁점 주제	계열체 분석	인물별 계열관계 및 속성 파악
	행위주 분석	인물별 행위의 목적 파악
사회문화적 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의미	담론 분석	담론의 유형과 의미 도출
	신화 분석	신화 및 이데올로기 발견

IV. 연구 결과

1. 서사 구조 분석

서사구조를 분석한 결과, 본 드라마는 ‘인간관계 책임 회피’ 서사, ‘경제적 안정감 추구’ 서사, ‘대안적 자아실현’ 서사, ‘사회부조리 극복’ 서사 등 네 가지의 중심서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인간관계 책임회피 서사와 경제적 안정감 추구 서사의 경우 각각 보조서사로 ‘애정육구상실’ 서사와 ‘신자유주의’ 서사가 드러났다.

인간관계 책임회피 서사의 경우, 남세희와 윤지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이며 애정관계를 비롯해 사람과 사람 간 맺는 인간관계에 다루고 있다. 이들은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한 것이다. 관계를 맺고, 상실하고,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서사를 구성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인물 간 관계에 변화에 주목한다.

경제적 안정감 추구 서사의 경우, 남세희와 윤지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서사로 파생된 신자유주의 서사는 남세희와 연복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남세희·윤지호, 연복남 모두 불안한 경제적 구조와 환경 속에 처해있으며, 끊임없이 경제적 안정감을 추구한다.

대안적 자아실현 서사는 심원석과 양호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자아실현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실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회부조리 극복 서사는 우수지와 윤지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부조리를 경험한 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끝내 부조리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심서사를 살펴보았을 때,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며,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일련의 흐름을 발견했다.

2.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 간 관계를 비롯해 서사별 인물관계 분석을 토대로 이항 대립 구조와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등장인물간의 대립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한 ‘욕망 간 대립’이다. 극대화된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현실이 개인의 욕망과 대립하면서 생겨나는 갈등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과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과 현실을 직시하는 인물 간의 갈등,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과 미래의 안정을 추구하는 인물 간의 갈등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대립’이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이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사고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치관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통한 ‘젠더 인식의 대립’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을 남성 혹은 여성의 젠더적 특성에 기인해서 인식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 개인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바라보는 인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다름에서 비롯된다. 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젠더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되었다.

표 2.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계열체 분석 결과

대립 인물	대립 양상	갈등 구조	사회문화적 함의
윤지호 vs 남세희	이상추구 vs 현실직시	현실과 욕망 간 대립	신자유주의 도래로 인한 욕망 간 대립
양호량 vs 심원석			
윤지호 모(母) vs 윤지호			
직장동료 vs 남세희			
남세희 vs 연복남	현재의행복 vs 미래의 안정	라이프스타일 대립	
남세희·윤지호 부모 vs 남세희·윤지호	사회의 보편적 기준 vs 개인의 주체적 선택	세대 간 대립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한 가치관 대립
남세희 모(母) vs 남세희			
남세희 아버지 vs 윤지호			
남세희 부모 vs 남세희			
양호량 vs 우수지	순응적 태도 vs 진취적 태도	성역할 인식 대립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통한 성(性) 인식 대립
남세희 모(母) vs 윤지호			
윤지호 부(父) vs 윤지호	남아선호 vs 개인존중	부조리 극복방식 대립	
마상구 vs 우수지	도전적 태도 vs 회피적 태도		
윤지호·우수지 vs 직장동료	인간 중심적 vs 업무 중심적		

3. 행위주 분석

중심인물 5인을 중심으로 한 행위주 분석을 통해 각각의 인물들이 추구하는 대상과 목적의 차이를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요소를 극복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윤지호와 남세희의 내면적 욕

망은 소속감과 신뢰에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위주 분석 결과는 청년세대의 현주소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준다. 남세희와 윤지호는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비용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심지어 인간관계를 맺는데 있어 필요한 시간과 감정마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망 중 하나인 소속감과 신뢰를 추구함을 알게 된다.

한편 더 나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을 지닌 양호랑과 심원석의 행위주 분석 결과를 통해 소위 삼포세대라 불리며 여러 욕망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청년세대도 여전히 사회적 인정 욕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진호에 대한 고발과 응징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우수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었다는 행위주 분석 결과를 통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닌 주체적인 현대 여성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

4. 담론 분석

담론분석을 통해 88만원 세대, 젠더 불평등, 결혼 등 주요 쟁점으로 등장인물 간 담화가 이루어졌으며, 발화 주체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담담론이 도출된다.

경제적 구조와 환경을 의미하는 88만원 세대에 대한 담화는 사회적 관계, 동거, 사회적 성공 조건, 라이프스타일 총 네 가지 논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담론은 소속감 중심 담론과 인간관계 포기 담론, 비혼·비연애 담론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동거에 대한 담론은 혼전동거 반대 담론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 담론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성공 조건에 대한 담론은 노력 성공신화 담론과 수저 계급 담론, 고학력백수시대 담론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담론은 불안극복 담론과 희망포기 담론의 대립으로 드러난다.

젠더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성 불평등에 대한 담화는 사내 스캔들, 이혼, 전셋집 명의, 집안 살림, 직업 및

직장생활, 신혼집 마련 총 여섯 가지 논제를 통해 생성된다. 이를 통해 사내 스캔들에 대한 담론은 여성차별 담론과 여성주체 담론의 대립으로, 이혼에 대한 담론은 이혼여성 차별 담론과 여성주체 담론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전셋집 명의에 대한 담론은 남아선호 담론과 여성권리 담론의 대립으로, 집안 살림에 대한 담론은 고정적 성역할 담론과 여성 인권 존중 담론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직업 및 직장생활에 대한 담론은 현실적 여성 담론과 맞벌이부부 담론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신혼집 마련에 대한 담론은 남성 경제 중시 담론과 맞벌이 부부 담론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결혼에 대한 담화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제를 통해 이뤄진다. 결혼식에 대한 담론은 관행적 결혼 담론과 결혼비용 최소화 담론이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담론은 사회적 지위 부여 담론과 선입견 탈피 담론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결혼 조건에 대한 담론은 사회경제적 기반 결혼 담론과 애정관계 기반 결혼의 담론이 대립하고 있다.

표 3.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담론들

주요 쟁점	담화 논제	대립담론	
88만원 세대	사회적 관계	소속감 중심 담론	인간관계 포기 담론 비혼·비연애 담론
	동거	혼전동거 반대 담론	경제적 효율성 중심 담론
	사회적 성공 조건	노력 성공신화 담론	수저계급 담론 고학력백수시대 담론
	라이프스타일	불안극복 노력 담론	희망포기 담론
성 불평등	사내 스캔들	여성차별 담론	여성주체 담론
	이혼	이혼여성 차별 담론	여성주체 담론
	전셋집 명의	남아선호 담론	여성권리 확보 담론
	집안 살림	고정적 성역할 담론	여성 인권 존중 담론
	직업 및 직장생활	가정현실적 여성 담론	맞벌이 부부 담론
	신혼집 마련	남성 경제적 능력 중시 담론	맞벌이 부부 담론
결혼	결혼식	관행적 결혼 담론	결혼비용 최소화 담론
	결혼	사회적 지위 부여 담론	기존 선입견 탈피 담론
	결혼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기반 결혼 담론	애정 기반 결혼

5. 신화 분석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지배적 신화로부터 도출된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다. 88만원 세대에 대한 지배적 신화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동거에 대한 시각을 통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혼식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관례라는 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평판 중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지배 신화는 ‘노력성공’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희망’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젠더 불평등에 대한 지배 신화는 사내 스캔들이나 이혼과 같은 이성 관계에 대한 소재를 통해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성의 희생적 태도와 안정적 직업을 강요받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남아 선호’ 이데올로기와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지배 신화는 결혼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상징이며, 이러한 결혼은 집안과 학력, 직업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성립으로 이루어진다는 시각을 통해 ‘사회적 평판 중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안적 신화로부터 도출된 이데올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8만원 세대에 대한 대안적 신화는 ‘전략적 동거’ 이데올로기와 ‘선입견 탈피’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동거는 경제적 효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사회적 시선과 선입견에 상관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시각을 드러낸다. 또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안의 경제력에 개인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시각은 ‘수저 계급’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며, 이러한 수저 계급 이데올로기와 일맥상통하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보다는 현재의 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념’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성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신화는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과 차별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여성 주체’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한

존재로 봐야 하며, 경제적 능력에 대한 책임 또한 남성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양성평등’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대안적 신화는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조건이라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통해 ‘주체적 선택’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드라마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88만원 세대 담론에서 도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는 정상 생애 주기가 가능했던 기성세대와 그러한 기성세대의 삶을 보고 자랐지만 현실적으로 정반대의 현실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개인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관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일차원적 욕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세대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판보다는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되어 성 불평등, 여성 차별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양성평등 이데올로기가 대안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

표 4.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항대립적 이데올로기

지배적 이데올로기	대안적 이데올로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전략적 동거 이데올로기
사회적 평판 중시 이데올로기	선입견 탈피 이데올로기
노력성공신화 이데올로기	금수저 이데올로기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	포기 이데올로기
남아 선호 이데올로기	여성 주체 이데올로기
남성 중심 성역할 이데올로기	경제적 능력 중심 이데올로기
남성 능력 중시 이데올로기	양성평등 이데올로기
	여성 지위 향상 이데올로기
	주체적 선택 중시 이데올로기

V. 논의 및 결론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가 내포하고 있는 신화와 이데올로기가 지닌 사회적·문화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력성공’ 이데올로기 대 ‘체념’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를 통해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지금의 청년세대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전 사회의 구조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사회는 부모와 집안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청년세대로 하여금 인간관계, 소속감, 정서적 유대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부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고차원적 욕망까지 포기하게 하였다.

둘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적 평판 중시’ 이데올로기 대 ‘선입견 탈피’ 이데올로기, ‘주체적 선택 중시’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한정된 계급을 인식한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욕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삶을 대하는 태도 및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전 세대와 동거, 이혼, 혼전입신 등의 소재로 갈등을 빚는 예피소드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낙관적 미래를 꿈꿔온 이전 세대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효율과 그 누구도 보장해줄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이 크게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 대 ‘양성평등’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드라마에서 그려진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비롯해 사내 스캔들이나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직장 문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혀있는 가부장제로 인한 성 불평등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관행처럼 답습해오던 그러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처하는 여성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드라마의 중심 이데올로기

노력성공 이데올로기	vs.	체념 이데올로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vs.	선입견 탈피 이데올로기
사회적 평판 이데올로기	vs.	주체적 선택 이데올로기
남성중심 이데올로기	vs.	양성평등 이데올로기

결과적으로 극심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한국 사회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따르는 세대와 이에 반한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나타난 지배 이데올로기들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의 삶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간접적으로 학습했으며 경험해왔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부모인 기성세대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한 뒤에는 비슷한 수준의 집안의 자제와 만나 결혼을 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을 보낸 부모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며 높은 학력과 지위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정반대이다. 부모를 통해 학습해왔던 사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부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고학력, 고스펙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인간관계와 공동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에 불과하며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은 당연한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조건이다. 결혼이 더 이상 당연한 인생 과업이 아닌 것이 되었다.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가 내포하고 있는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로부터 학습한 사회와 자신이 직면한 현실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본 드라마의 재현을 통해 현 시대에 우리의 청년세대가 어떠한 문제들과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할지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 본 연구는 백선기교수의 <청년세대와 미디어 재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며 송아현의 석사논문의 일부로 활용된 바 있음.

참 고 문 헌

- [1] 사람인, *해의취업 설문조사*, 2017.
- [2] 이종임, *디지털 세대·문화 정체성(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3] 김남석, *세대 문제: 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세대론*, 서울: 책세상, 2013.
- [4] 박재홍,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pp.1-23, 2013.
- [5] 윤상철,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 pp.61-88, 2009.
- [6] 박재홍,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77-98, 2008.
- [7]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제14권, 제3호, pp.73-105, 2006.
- [8]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pp.47-78, 2001.
- [9] 방희경, 유수미,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2호, pp.37-61, 2015.
- [10] 이기훈, “[특집: 위기의 청년]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 ‘청년’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권, pp.207-227, 2004.
- [11] 김선기,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2] 최성민,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Vol.50, No.10, pp.227-248, 2012.
- [13] 장신, 박찬승, 오제연, 허병식, “20세기 한국에서 ‘청년은 무엇이었나,’” *역사문제연구*, 제33권, pp.219-280, 2015.
- [14] 우석훈, 박권일, *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
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2007.
- [15]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탈경계인문학*, 제9권, pp.101-123, 2011.
- [16] 권경우, “한국 청년세대 담론의 지형도,” *교양학연구*, 제3권, pp.7-44, 2016.
- [17] 박권일,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과국론,” *황해문화*, 제90권, pp.73-95, 2016.
- [18]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 pp.10-34, 2009.
- [19] 송동욱, *청년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삼포세대 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0] 김지애,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1] 이서라,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수용에 관한 대화성 연구: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22] 신광영,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 pp.35-60, 2009.
- [23] 황수경,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3호, pp.49-86, 2001.
- [24] 김예란, “디지털사회, 소통의 문화,” *언론과 사회*, 제15권, 제3호, pp.39-70, 2007.
- [25] 통계청, *1인 최저주거기준자*, 2010.
- [26] 백선기, *미디어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27] 김태형, “밀레니얼 세대의 직무 몰입,” *한국오라클*, pp.54-61, 2017.
- [28] 강보경, *회고 드라마의 재현, 서사 및 의미구조: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대한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9] 장동국,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타난 TV 노스텔지어: O.S.T, 사회현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0] 정이나, *<응답하라 1988>의 서사성, 재현 및 의미구조: 기호학적 개념과 담론 구조의 의미작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1]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2] 유진아, *TV드라마의 계급갈등과 신화와 이데올로기 연구: TV드라마 <내조의 여왕> 기호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3] 황혜영, *텔레비전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상에 대한 연구: KBS2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 온 당신>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4] 우지혜, 백선기, “청년 안에서 바깥으로: 미메시스 이론을 근간으로 1990년대와 2010년대의 청년 세대의 저항 및 욕망과 대중음악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2, p.555, 2018.

[35] 김은영, “어린이 텔[33]레비전 단편영화의 서사 구조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4권, pp.5-42, 2010.

[36] 백선기,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7] 나은희, *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미생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8] 양승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재현 형식과 영상도식,” *東亞文化*, 제49권, pp.68-88, 2011.

[39] 나이선, *TV 드라마에 나타난 동성애의 서사적 관점과 영상표현*,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0]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대한 연구: 웹툰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1] 박민희, *2000년대 한국 스릴러 영화의 장르적 재현, 의미구성 및 사회 문화적 의미: 영화 <추격자>와 <숨바꼭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42] 오덕현, *TV 사극의 역사재현과 저항적 의미생산: <대왕세종>과 <뿌리깊은 나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3]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44]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45] 우지혜, 백선기, “대중문화 텍스트에 관한 SNS 비평 담론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 p.703, 2017.

[46] 김광현, “이데올로기: 통시적 및 공시적 고찰,” *기호학 연구*, 제17권, pp.115-135, 2004.

[47] 강민경, 백선기, 남시호, “문화적 양극화와 탈북자 토크쇼, 정체성 혼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 p.572, 2017.

저 자 소개

송 아 현(Ah-Hyun Song)

정희원



- 2013년 :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2018년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석사)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기호학, 담론연구

백 선 기(Seon Gi Baek)

정희원



- 1979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1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1985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수료)

• 1989년 : Univ. of Minnesota, Communication Studies 전공(박사)

• 1990년 ~ 1997년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997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현재 : PACA 회장, WCA 회장, IAMCR 국제평의회 의원, 한국방송학회 회장 및 한국기호학회 부회장 등 역임

<관심분야> : 기호학, 대중문화, 문화연구, 담론연구